

T V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rows for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schedules.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vs '어디서 본 듯해 식상하다'

보석비빔밥·수상한 삼형제 등 다시 뭉친 '드라마 사단' 득과 실

인기 작가와 PD들이 브라운관에 복귀하면서 그들의 '사단'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작가와 PD의 작품에 잇따라 출연하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일련의 배우들을 뜻하는 '사단'은 드라마계에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 왔다. 특히 김수현, 문영남, 임성찬 등 톱 작가들은 그 사단의 폭이 무척 넓으며, 이병훈 등 PD들도 자신의 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 5일 시작한 임성찬 작가의 MBC TV '보석비빔밥'<사단>에서는 박근형, 한혜숙, 한진희, 이태곤 등 인기 작가의 사단이 다시 대거 뭉쳤으며, 내달 시작하는 문영남 작가의 KBS 2TV '수상한 삼형제'에는 안내상, 오대규, 김희정, 박인환 등 문 작가 사단이 재집결한다.

은 지적도 받는다. 과연 이들 사단은 뭉침으로써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하늘이시여'에 이어 '보석비빔밥'으로 임성찬 작가와 호흡을 맞추는 이태곤은 "임 작가님의 작품이어서 무조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태양을 삼켜라'의 유철용 PD 사단도 "연출자를 믿고 작품을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배우와 작가, 배우와 PD 간의 이러한 전적인 신뢰는 드라마계 이른바 사단의 가장 큰 장점이다. 경험을 통해 서로 신뢰하게 됐기에 어떤 역할, 어떤 작품이건 계속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촬영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인다. 한마디로 이십전십박하게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인지 실제로 여러 번 호흡을 맞춘 배우들끼리의 조합은 대체로 안정적인 시청률로 이어지고 있다. '소노란 칠공주', '조각지치클럽'에 이어 '수상한 삼형제'까지 세 작품 연속으로 문 작가의 작품에 출연하게 된 김희정은 "다시 문 작가님과 작업하게 되니 영광일 따름"이라며 "특히 '조각지치클럽' 때 호흡을 맞췄던 많은 배우와 다시 일하게 돼 무척 편하다. 장기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다들 친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효율성의 뒤에는 식상함이 자리한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 다른 캐릭터라고 해도 같은 출연진의 조합은 신선함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습생>



연하게 된 김희정은 "다시 문 작가님과 작업하게 되니 영광일 따름"이라며 "특히 '조각지치클럽' 때 호흡을 맞췄던 많은 배우와 다시 일하게 돼 무척 편하다. 장기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다들 친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병상련의 일진. 4회전 2국 1보 (1~21). Diagram showing a Go board position with numbered stones and a list of players: 백 강행욱 5단, 흑 김영수 5단. Includes text about the game and players' background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9일 (음 7월 21일 丁巳). Daily fortune telling section with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s.

EBS and EBS플러스1, 2 program schedules.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Includes '굿모닝 잉글리쉬' with a dialogue about an apology, '오하오우 니혼고' with Japanese grammar questions, '니하오 쑹구위' with a Go game problem, and '한자 이야기' with a story about the idiom '竭澤而漁'.